

고운 한복에 어우러진 복주머니

금낭화



정연권

구례군농촌지도소 화훼전문지도사

드 모란, 며느리주머니, 며늘취
○ 등으로도 부르는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는 현호색과에 속하는 속근성 다년초로 지리산 피아골에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다.

금낭화는 화단, 화분용 뿐 아니라 식용과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초봄부터 여름까지 피어나는 꽃은 새색시의 복주머니를 연상시키며, 신비로운 모습이 탄성을 자아내게하는 아름다운 꽃이다.

1. 특성

줄기는 곧게서서 60cm정도로 자라고 원통상으로 속은 비어 있다. 붉은 갈색을 띤 녹색이거나 회녹색을 띤 녹색이다.

잎은 길이가 3~6cm정도이며 서로 어긋나게 자라며 잎자루는 길다. 잎몸은 깃털모양으로 갈라져 잎조각이 한자리에 세개씩 모여서 하나의 잎조각은 얇게 세갈래로 갈라진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열편은 도란상으로 기부는 좁아

저서 뾰족한 썸기형이며 끝부분은 갈라져 있고 갈라진 열편 끝부분은 폭이 넓고 끝은 뾰족하다. 잎색은 녹색이 나며 뒷면은 회백색으로 백색을 띤다.

꽃은 하트 모양 또는 주머니 모양이며 3월하순 부터 6월까지 적분홍색으로 피어난다. 원줄기 끝에 총생 화서로 편측에 붙어피므로 꽃의 무게 때문에 활처럼 곡선을 그리며 늘어진다. 화서길이는 20~30cm로 꽃수는 17~18개이며 꽃의 길이는 2.7~3cm 폭은 1.8~2cm정도이다.

꽃받침은 2개로 끝은 둥글고 길이는 6~7mm로 빨리 열린다. 꽃잎은 4개로 2개의 외측 꽃잎 아래부분은 넓은 주머니 모양이고 끝은 좁아져서 밖으로 젖혀지는데 길이는 2cm 정도이다. 2개의 내측 꽃잎은 합쳐져서 돌기 모양이고 길이는 2.5cm정

도다. 수술은 여섯개가 두몸으로 갈라지고 암술은 1개다.

뿌리는 굵은 다육질이며 흙속에 깊이 뻗어 있는데 생약명으로 토당귀라 한다.

2. 성분 및 약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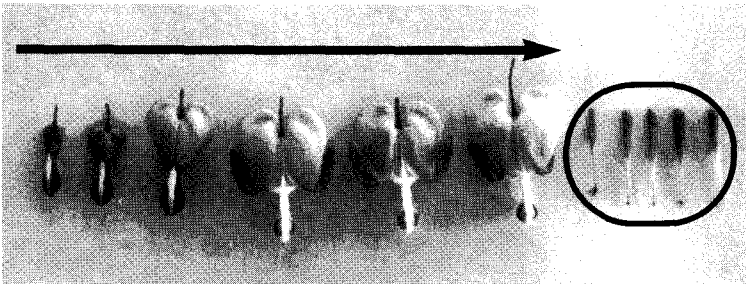
뿌리줄기에 프로토펜(*protopin*)이 1%가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를 잘 고르게 하고 종기를 가시게하는 효능이 있다. 상처를 입거나 타박상을 입었을때 생잎을 찢어서 붙이거나 말린것을 가루로 뺀아 이겨서 환부에 붙인다. 복용은 잘게 썬것을 1회에 2~4g씩 200cc물에 넣어 천천히 달여서 마신다.

뿌리줄기는 봄, 가을 캐서 햇빛에 잘말려 약초로 이용한다. 어린순은 며늘취라 하여 맛있는 나물로 꼽힌다. 그러나 독성이 강하므로 삶은

금낭화는 장독대 옆에 심으면 더욱 운치가 있다.



금낭화 개화순서(화살표 방향) 및 종자 채취적기(원내)



다음 며칠동안 물에 담가 놓았다가 무쳐 먹거나 말려서 먹도록 한다.

3. 번식 가. 분주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인 3월상순경이 좋다. 전년에 고사한 줄기 밑을 삽으로 깊게 굴취, 새순이 생성된 것을 3~4눈을 1주로 하여 예리한 칼로 잘라서 심는다.

나. 실생

6월경 꽃이진뒤 노란색을 띠때 종자가 터지기 전에 채취한다. 신문지등에 펴 말려서 종자를 선별하여 바로 파종한다. 파종상은 사각프라스틱 상자나 나무상자에 부엽30%, 모래20%, 사질양토50% 비율로 배합한 상토를 넣고 물을 준후 판자로 고르게 다진다. 종자는 산파하되 사방 1cm정도 되도록 뿌리고 비미큘라이트나 고운 모래로 복토하고 신문지로 덮은후 다시 충분히 관수한다. 새싹이 돋으려고 상토가 갈라지면 신문지를 제거하고 2~3일 간격으로 관수한다. 발아율은 약80% 정도로 높

은 편이며 3년후에 개화한다.

본엽 2~3매가 되면 포트에 1차 가식하여 본엽 7~8매가 된후 10~11월경에 정식하거나 본엽 3~4매 시에 정식해도 무방하다.

4. 화분재배

활처럼 곡선을 그리며 피는 금낭화는 화분에 심어서 관리하면 좋다.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사질양토50%, 부엽30%, 마사20%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배수와 통기성이 좋도록 화분밑에는 굵은 모래를 깔고 위에 배합한 흙을 넣고 심는다. 최적온도는 10~25℃이고 최저는 -5~-7℃이며 최고3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정식은 지상부가 고사한 뒤에 어느 때나 가능하나 새싹이 돋기 전에 하는것이 편리하고 눈이 실한 것을 심어야 당년에 복스러운 꽃을 볼 수 있다. 화분에 3~4눈을 기준으로 심고 눈이 2~3배 묻히게 하되 화분 8부 정도만 흙을 채우도록 한다.

금낭화는 양성식물로 광선을 좋아하므로 개화까지는 밖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도록 하고 여름철 고온기는 30% 차광 시킨다. 관수는 3~4일 간격으로 오전10시경에 충분히 하여 뿌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물이 많으면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게 되므로 물 줄때 신경을 써야 한다. 병해충은 별로 없으나 응애가 약간 피해를 준다. 약제는 타스타, 토큐, 모레스탄등을 월2회정도 살포한다. 특히 켈센, 오마이트등은 성충, 약충 및 알에서 깨어난 약충도 방제가 되므로 효과적이다.

5. 화단재배

금낭화는 봄에 많이 심는 편지, 페튜니아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꽃이라 생각된다. 한번 심으면 3~4년간 계속두게 되므로 주간 30cm 간격으로 3조식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심는다. 특히 인조목이나 통나무를 중간정도 또는 경계적으로 하여 심으면 한층 더 운치가 있다.

원추리와 옥잠화등을 혼식하면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옆으로 퍼져 증식되고 종자가 떨어져 자연 발아되어 묘가 증식되어 좋다.

장독대 옆에 심으면 봄의 아지랑이와 따스한 햇빛, 춘풍에 하늘거리는 금낭화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의정보**

